

論 叢

流動換率制의 實施와 그問題點

朴 楨 東

지난 3.20 日 實效로 우리나라는 單一變動換率制라는 새로운 外換率制를 實施하게 되었다. 勿論 이 制度自体는 지난해에 5.3 措置를 通해 이미 採択되었던 것이지만 그 實質化의 前提가 되는 外換市場의 欠如와 輸入쿼타制의 存続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有名無實이 되어있던 것은 누구나 다 아는 事實이다. 그러므로 換率의 流動化는 지난 3月22日以後부터 實質적으로 始作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政府가 이와같이 劃期的이라고 할만한 外換政策을 採択하게 된 理由는 勿論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重要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주로 다음 세가지 點에 있는것이란 하겠다.

첫째로 우리나라와 같이 늘 인플레이構造下에 있는 經濟에 있어서는 끊임없이 通貨價值가 低落되기 마련이기 때문에 設便 單一固定換率을 設定한다 하더라도 早晚間 實勢와 遊離되기 때문에 그 維持가 事實上 不可能하다는 것이요

둘째로 通貨價值低落에 의한 對外的인 元貨의 過高評價는 輸出을 阻害하고 輸入을 促進시키는 傾向에 있다는 點이다. 이렇게 되면 흔히 말하듯이 輸入業者를 비롯한 外換使用者에게는 도리어 補助金을 주는 꼴이 되고 집작 補助金을 받아야 할 輸出業者에게는 税金을 課하는 꼴이 되니 말이 안된다는 것이며

셋째로 이러한 低換率下에서는 恆常 不正과 腐敗가 뒤따르게 되

어 各種 經濟惡 내지는 社會惡을 벗어내고 있다는 點이 그 것이다.
위에 든 세가지 點은 確實히 우리나라 外換政策에 있어서 考慮
되어야 할 基本問題인것 안은 틀림없는 事實이며 그로부터 벗어지
는 弊端이 어떠한것인가 하는것은 여기에서 새삼스러히 말한것도
없다. 따라서 새로운 外換政策에 依해서 이러한 問題點이 圓滿히
解決될 수 있다면 國民누구나가 기뻐하지 않을 수 없는 多幸之事
라 하겠다.

그러면 果然 換率의 流動化로서 이러한 問題點을 期待한 方向에
서 解決할수 있고 그로써 所期의 成果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大部分의 經濟政策이 그러하듯이 流動換率制라고 하여 完全無欠한
것은 못되는것이며 다만 固定換率制와 比較하여 볼때 어느쪽이 利害
得失이 큰가하는데서 取捨選擇의 基準을 求할 수 밖에 없을 것은
勿論이다. 다음에서는 이點에 대해서 極히 簡略하게 그 本質을
밝혀 보고자 한다. 그러는 가운데서 우리는 現行換率制가 지니는
特性은 무엇이며 거기에서 期待할수 있는 政策效果의 限界는 무엇
인가 하는것을 分明히 認識할수 있게되기도 할 것이다.

첫째로 이 制度에서 期待하는 가장 重要한 政策效果의 하나인
 兪勢換率의 自動維持問題를 보기로 하자 確實히 換의 兪勢를 反映
시키는대는 換市場에서 그 需給에 따라 決定되도록 맡겨두는것이
가장 좋고도 손쉬운 方法임은 구태여 긴 說明을 必要로 하지않을
것이다. 그런데 問題는 이렇게 하여 換時勢가 決定되도록 放任하
여 두는 것이 一定率에 固定시켜 두는것 보다도 弊端이 적잖는가
하는點에서 판가름 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지금까지의 經驗
에서 알 수 있드시 固定換率의 가장 큰 弊害는 위에서든 輸出抑
 制效果라든가 不正腐敗의 醜素가 된다는 點에 있는것은 周知의 事

탓이나 그만 못지않게, 아니 境遇에 따라서는 그보다더 나쁜 害毒을 끼치는 것으로서 갑작스러운 換率變更에서 오는 國民經濟에의 急激하고도 大幅的인 衝擊을 들지 않을 수 없다. 公定換率在 市中換率과 지나치게 遊離하게 될 境遇 不得已 換率을 變更하지 않을 수 없겠는데 固定換率의 境遇에는 이것을 突然히 敢行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物價暴騰을 爲始한 各種 副作用이 連鎖反應을 이르게 國民經濟에 甚大한 惡影響을 미쳤던것은 흔히 우리가 이것을 「換波動」이라고 불려왔는데서도 能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는 일이다. 設使 周到한 事前措置를 先行시켰다 하더라도 調整過程에서 일어나는 犧牲은 想象外로 큰것이 事實이다. 이런點에서 볼때에는 換時勢를 流動化시킴으로써 市場率의 激進的인 變動過程에 分散 吸收當하도록 誘導하는 單一變動換率制가 가장 理想的인 方法이라고 생각된다.

다만 問題는 우리가 흔히 公定換率을 實勢化시킨다고 할때에 그 所謂 「實勢」라는 것이 무엇을 가르키고 있고 어떠한 基準에 立脚하고 있는가 하는 點이다. 좀더 具體的으로 말하여 그것은 換證書의 單純한 需給均衡線을 말하는 것인가? 或은 商品交易條件의 均衡水準을 말하는 것인가? 한 거를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의 産業構造의 改編이라든가 適正成長을 招來할 수 있는 所得交易條件까지도 勘案한 水準을 말함인가? 한마디로 要約해서 換率의基準을 自然換率에 두느냐 適正換率에 두느냐 하는 疑問點이 그것이다.

證書率의 變動을 通하여 實務를 反映시킨다고 할 境遇 첫제點을 가르키고 있는것만은 分명한데 그것은 위에 指摘한 自然換率이나 適正換率의 그 어느것도 나타내 주는것은 아니라는 것을 注意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도시 우리나라와같이 對內的으로는 「푸라이스」

메카니즘」의 円滑한 作用을 爲한 바람이 마련되어 있지도 못한데다가 過少供給 過大需要가 慢性化되어있고 對外的으로는 交換의 總需給事情이 말도안되는 逆調現象을 示顯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生産力水準이 先進國에 比하여 顯隔히 低位에 있는 基礎的不均衡狀態下에서 換率의 現實的인 水準이 成立될수 있겠는가 하는것은 疑問이 없을수 없다. 勿論 現象的으로는 그때그때의 換의 需給事情에 따라 一時的인 均衡點이 있을수 있을는지모른다 그러나 이境遇 極히 皮相的인 觀点에서만 보더라도 輸出入 許容品目이나 許可額次 内外稅制의 如何, 財政金融政策과 인프레展望, 輸出코스트, 外換保有高, 外貨配定制等 其他 諸般事情에 따라 換證書時勢는 隨時 變動하게 마련인데 아직도 國民經濟의 한편에서는 農家經濟와 같이 前近代的인 封建構造를 脫皮하지 못하고 있는部分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商業独占資本에 依한 市場의 独占 乃至 寡占現象을 벗어내고 있는 異質的인 經濟構造下에서 實勢를 反映한 換率이란 語不成의 境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보아야 마땅할 것이다.

비록 制限된 意味에서나마 市場換率이 實勢를 反映하기 爲해서는 우선 貿易의 自由化範圍를 어느程度 許容하느냐 하는데 따라서 매우 달라질 것이며 그러기에 變動換時勢는 自由化政策을 前提條件으로 하지않으면 안된다는 것은 前述한바와같다. 今年度 貿易計劃에서는 全体輸入需要의 80%가까이를 우선 自動承認品目으로 들릴것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留意하여야 할것은 이른바 近 80%의 自動承認品目도 總體的인 輸入需要를 全量 認定하고 들어간것은 아니라는 點이다. 政府가 推計한 65年度 全体物質需給計劃만 보더라도 輸入需要의 總計는 721,926千弗이나 되는데 輸入計劃은 535,446千弗水準에서 멈출것으로 되어 있고 보니

나머지 2億弗程度는 輸入이 抑制當할것이 分明하다. 이러한 마당에서 自由化品目이 아니라 輸入需要를 全量카바할 수 있는 規模의 外貨를 마련해놓고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큰 錯誤를 犯하고 있다고 하여야 될 것이다. 다만 그것이 곧장 外換需要의 急增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財政安定計劃이나 稅制·金利 따위에서 오는 餘他事情의 逼迫 때문에 潛在하여 있는데 不過한 것이지 需要가 아주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닐 것이라고 推理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사것 잘못하여 一部人氣品目에서 投機를 誘發하게 되는 契機만 助成되는 날이면 그것이 波及하게 될 惡影響等은 想象外로 클지도 모른다. 그 어느 境遇이든 自由化政策은 自由化品目에 對한 輸入需要는 全量「미이트」하는 方向으로 指向하게 될 것은 틀림 없는데 이렇게 될 境遇에는 輸入의 抑制은 고사하고 오히려 그것을 助長하는 結果가 될 可能性이 없지 않다.

이렇게 보아올 때 우리나라에서 實勢換率이라고 하는 것도 嚴密히 따질 때에 一種의 政策換率에 不過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變態的인 市場換率에 順應하도록 國民經濟의 움직임을 막아둔다는 것은 短期的으로는 몰라도 長期的으로는 經濟循環의 正常的인 機能을 오히려 構造的으로 歪曲變形시키게 될 뿐만 아니라 對內對外的인 所得分配過程에서 甚한 不公正을 招來하게 될 것이 뻔하다.

이점에 對해서는 後統되는 論議에서 더욱 뚜렷하게 밝혀질 것이다.

둘째로 變動換率制를 通하여 가장 큰 期待를 걸고 있는 것은 輸入需要의 抑制과 輸出促進效果이다. 換證書率의 流動化는 實質的으로 비록 緩急의 差는 있음망정 끊임없는 換率의 引上을 意味하는 것이 되겠기에 그것은 全平價切下로 나타나며 따라서 一般的으로

平價切下가 지나게 되는 輸出促進과 輸入抑制效果가 적어도 固定換率의 境遇 보다는 變動換率制에서 더 크게 作用되게 될 것이라는 것은 아무도 否認할수 없을것이다. 그러나 反面 이러한 平價切下效果는 輸入商品의 原價高를 통한 輸出商品價格騰貴로 早晚間 相殺되고 만다는것 또한 一般의인 常識이다. 特히 우리나라와 같이 原料나 設備의 對外依存度가 높은 産業構造를 지니고 있는에서는 輸入商品의 需要彈力性이 極히 非彈力的이고 게다가 輸出商品의 供給彈力性 또한 非彈力的이며 우리나라 商品에 對한 輸入國側의 立場에서 보더라도 一次產品에 對한 輸入需要는 價格變動에 對하여 彈力性이 거의없는 것이고 보니 交易條件의 單純한 變動만으로 輸出增進效果를 期待할수는 없다고 보아지며 오히려 위에는 物價上昇效果만을 相對的으로 더욱 助長할 可能性이 甚다하겠다.

지금까지의 經驗에서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輸出商은 大體로 輸入商도 兼하고 있어서 輸出에서 招來된 損失을 輸入貿易에서 얻는 큰 利得으로 카바하여 온것이 常例였다. 그런데 單一變動換率制는 이러한 輸入貿易의 超過利潤을 消滅시킴으로써 結果적으로 輸出貿易까지도 興味를 잃게 할 憂慮가 없지않다. 아직 實証的인 結論을 내리기에는 時機尙 早라고 하더라도 昨今の 國內輸出入貿易의 低調現象은 이러한 事情의 一端을 보여주고 있는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리하여 變動換率制下에서도 輸出振興을 促求하기 爲해서는 從前과 마찬가지로 各種 補助補償措置가 必要하다는 結論이 나오는데 이렇게 될 境遇에는 變動換率制採択의 意義의 殆半은 消滅한다고 볼 수 밖에 없으며 도리어 變動換率制下에서 補助補償措置를 施行할 境遇에는 一般의으로 商品價格이 利潤率이 零이 되는데까지 밀고가는 힘이 作用하는 것과 같이 輸出商이 얻게될 補助金도 証書價格

안 에 공급없이 吸收當하려는 傾向이 있게 되어 終局的으로 證書率의 騰貴를 助長하거나 아니면 海外市場에의 廉價売出의 便宜를 提供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한다.

한 거를 물려나서 政策的인 見地에서 불매에 輸出코스트를 補償내지는 保障하여주는 方法으로서 換率操作에 구태어 依存하자는 것은 지나치게 安易한 생각일 뿐만 아니라 눈가림에 지나지 않게 될 公算이 크다 하겠다. 왜냐하면 그것은 大局的인 見地에서 불매 對外的으로는 國民所得의 海外에의 強制移轉을 結果할 뿐만 아니라 對內的으로는 社會階層間의 不平等化를 더욱 深化시키기 때문이다. 特히 輸出商品의 構造가 保稅加工貿易의 範圍를 넘지않은 現實情下에서 交易條件의 不利化 다시말하면 不等價交換을 人爲的으로 圖謀하여가면 서까지 投売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出血輸出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終局的으로는 國民經濟의 窮乏化成長을 強要하는 꼴밖에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아니 할수 없다. 現實的으로 보더라도 輸出商品의 코스트는 金利, 稅制, 社會間接費 따위의 操作으로 얼마든지 그 값을 變更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輸入國側의 關稅率, 物品稅等의 變更으로도 利潤率이 一時에 달라질 수 있는 形便인데 이러한 外部的인 要因變動을 換率變動으로 吸收시킨다는 것은 不當하다 하겠다.

세째로 變動換率制에 依하여 期待하는 다른 하나의 効果는 이른바 元貨의 低評價에서 오는 不正腐敗의 溫床을 없애버리자는 것이다. 지금까지 各種 經濟惡, 社會惡이 外貨를 圍繞하고 寄生하였던 것은 天下共知의 事實이며 이것을 하루속히 根絶시켜야 한다는 것은 非但 社會正義를 爲해서 뿐만 아니라 國民經濟의 正常的인 運營을 爲해서도 時急한 課題의 하나가 아닐 수 없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換率引上을 통하여 이룩하자는 것은 實質的으로 아무런 効

果를 期待하기 어려운 措置라고 보아진다. 왜냐하면 換率의 実勢化 다시말하면 單純한 價格政策을 通하여 特惠要素를 排除하자는것은 陽性化되어 있는 不正行爲를 合法的인 不均衡過程을 通하여 陰性化하자는 結果가 된다는것을 率直히 認定하지않을수 없기때문이다. 換率이 現實化된대도 不拘하고 賃金이나 俸給이 実勢化되지 못한다면 賃金所得者에게서 非賃金所得者로 所得이 移轉할것은 自明하며 換率引上으로 해서 肥料價格이 오른 만큼 農産物價格이 오르지 못한다고 하면 農業部門의 所得이 非農業部門으로 収奪당하게 될것은 말할것도 없다. 이렇게되면 不正腐敗에 依한 것이냐 或은 價格政策에 依한것이냐 하는 手段方法的 差異가 있을뿐이지 結果的으로 所得의 不公正한 分配를 招來하기는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다른 價格政策의 境遇에는 그 弊害가 國民經濟内部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보니 우선 全体的인 國富나 國民所得의 見地에서 볼때에는 큰 差異가 없기 때문에 당장에는 좀 참을수 있다고 보겠으나 換率變更의 境遇에는 交易條件의 惡化을 通하여 國際間的 所得移轉을 招來하는것이냐 問題는 全然 다르다 아니할수 없다.

이 밖에도 한마디로 外貨에서 빛어지는 特惠라 할지라도 따지고 보면 그 가운데는 여러가지 要因이 서로 얽혀져 있어서 元貨의 低評價는 그 한要因에 不過한 것이다. 가령 輸出入節次, 外貨의 配定節次, 外貨代錢의 徵收節次 또 거기에 따른 支給保證의 有無, 特關稅, 物品稅, 國內物價展望等이 모두 特惠를 醸成시키는 要因이 되는 것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런것들이 한데 얽혀서 남게되는 特惠를 換率變更으로 吸收하여 버리자는 것은 皮相的인 政策의 範圍를 벗어나지 못한다고 하겠다.

以上 粗雜하나마 變動換率制가 지니는 政策效果의 得失 乃至는

限界를 몇가지 關鍵이 될만한 問題點의 考察을 通하여 檢討하여 보았다. 結論적으로 이것을 다시한번 要約하여 보자면 다음과 같다. 卽 變動換率制는 平價切下를 爲한 自動安定裝置의 口實을 하게 되기 때문에 一時的으로는 輸出促進 輸入抑制의 效果를 가져오게 된다고 볼수있으나 이것은 反面에 國內物價騰貴라는 代價를 要求하게 되며 또 同效果發頭의 前提가 되는 輸入自由化政策으로 말미암아 事實上으로는 輸入抑制效果도 滅殺되기 쉽다는 점이 그 하나이고 다음 不正腐敗의 除去에 있어서도 換率變動이 社會階層間에 미치는 效果가 相異하기 때문에 結果적으로는 除去되지 않은것과 마찬가지로는 것이 다른 하나이다. 그렇다면 變動換率制가 固定換率制보다 有利하다고 할까 長점이 될만하다고 볼수있는 것은 公定換率이 自動적으로 市中時勢와 符合되도록 하여 總으로써 「換波動」과 같은 急激한 衝撞을 避할수 있는것밖에 없을상 싶다. 구지 다른 利點을 좀더 고집어내 본다면 換證書率의 變動을 通하여 인플레이의 發生可能性을 早期警告하여 總으로써 政府의 放漫한 財政金融政策을 豫防하는 구실을 할 수 있다는 점이 될것이다.

아무튼 이러한 利點을 얻게 되는 代身 對內的으로는 換投機와 物價昂騰의 危險性을 潛在시키게 되고 對外的으로는 平價切下를 通한 國民所得의 強制漏出을 自動化시키는 短點을 갖게 된다고 하겠는데 그 得失中 어느것이 크겠느냐 하는것에서 單一變動換率制의 存置與否가 評價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게된다. 인플레이의 收束은 輸出增大와 함께 國民經濟가 當面한 가장 時急한 兩大課題가 되어있다. 따라서 財政安定計劃의 強力한 執行은 政府의 物價政策의 根幹이 되어있다. 萬一 이러한 財政安定計劃의 成功으로 物價昂進을 막을수 있다면 公定換率과 市中換率間

의 乖離現象은 일어나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에 固定換率制를 採択하게 되면 流動換率制를 存置시키게 되면 別問題 될 것이 없다.

그러므로 流動換率制를 구대어 實施한다는 것은 앞으로는 緩急의 差는 있을망정 인프라는 持續될 것이라는 前提에 서 있기때문에 問題가 되는 것인데 이르고보면 結局 「短期的으로 大幅的인」換率 引上에서 오는 突然한 衝擊代身에 「長期的으로 小幅的인」換率 引上을 通하여 一種의 「크리핑 . 인플레이션」으로 誘導하자는 것이라고 結論 지어 大過없을 것이다.